

제 5 강 구원! 욕망의 집착에서 사랑의 자유로 비상하기

4강 복습

- 성서를 읽는 목적
- 성서의 정체성
- 성서를 읽는 다양한 비평방법
- 하느님의 뜻은 어디에
- 실천과 해석의 해석학적 순환
- 성서는 언제 하느님의 말씀이 되는가?

지난 주에는 성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목이 “나를 읽는 책! 성서는 언제 누구에게 하느님 말씀이 되는가?”였지요. 성서를 그냥 읽는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면에서 성서는 단순히 일반 다른 책과 똑같은 - 다만 다양한 저자에 의해 여러 시대를 걸쳐 쓰인 다양한 장르의 글 모음집으로서의 - 한편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언어’로 쓰인 이 책에 대해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느님의 신비로운 뜻이 들어있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와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간격을 메꾸는 작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왜 성서가 하느님의 말씀인가 묻는다면 그것에 대해 할 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서를 읽을 때 인간의 언어를 넘어서는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성서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좋은 영화나 연극을 보기 위해서 누가 나오는지, 어떤 내용인지, 관객들의 평은 어떤지 살펴보고, 또 미리 예약도 하듯이 성서를 읽을 때도 성서의 형성과정에서부터 비평방법들에까지 공부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서를 읽는 목적은 정보나 지식을 취득하거나 재미를 얻기 위해서라기 보다 성서를 통해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삶의 방향을 계속해서 수정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와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듯이 성서는 나를 꿰뚫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밝히고, 다른 한편으로 하느님의 사람으로 유능하게 선한 일을 하게 한다고 말한 것처럼 성서는 내 자신의 욕망, 이 세계가 주입하는 자본주의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지요. 즉 성서는 나의 삶 전체와 내 존재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를 읽을 때 하느님께 기도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고, 또 때로는 제대로 읽기 위한 토론, 읽는 방법과 읽은 대로 실천하는가 하는 성찰이 매우 필요한 것이지요. 이런 자세가 없다면 내 존재나 행위의 변화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독서 행위가 그렇듯이 읽는 책의 특징과 성격을 바로 알 때 제대로 된 독서가 가능합니다. 성서가 어떤 책인지 모르고 읽는다면 오해할 소지가 매우 많지요. 성서가 과학적

으로 증명되거나, 역사적 사실로 인정되어야만 된다는 생각은 성서가 줄 수 있는 다양한 의미를 축소시키거나 왜곡 시키기 쉽습니다. 성서는 이미 일어난 사건에 근거한 어떠한 고백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라는 것이 이미 해석된 사실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사실 모든 역사적 기록은 이미 해석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석이라는 것이 순전히 자신이 만들어 낸 것이거나 자신의 생각이 투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체험적 주관! 즉 주관적 고백을 넘는 원체험이 있는 것이지요. 성서를 읽는다는 것은 성서 저자들의 그 체험을 공유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주에 또 성서의 다양한 비평 방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실제 성서를 찾아가면서 살펴 보기도 했지요. 모두를 다시 복습하긴 어렵고, 다만 큰 틀에서 역사 비평과 문학비평, 그리고 이데올로기 비평 정도는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성서의 저자나 기록한 시대의 상황들을 역사적으로 완벽히 재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고고학적 탐사를 통해 그리고 당대의 다양한 역사기록을 비교하고, 또 문화인류학적 연구 등의 도움을 받아 성서가 기록된 시대의 밑그림을 어느 정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런 밑그림의 도움을 받지 않는 성서 읽기는 너무 자의적 해석이 되고, 결국 자기 위안을 삼기 위해 성서를 읽게 되어 결국 성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자기자신을 읽는 폐쇄적이고 편협한 성서읽기가 되고 말지요. 역사 비평은 그런 지점에서 참 중요한 방법론이고요. 문학 비평은 성서가 하나의 이야기라고 할 때 모든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구성, 등장인물, 배경 등을 연구하는 것이지요. 수사학의 도움을 받아 바울서신을 연구하기도 하고요. 책 자체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의미도 상당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데올로기 비평은 지난 번 비트겐슈타인의 그림 오리-토끼에서 보았듯이 아직 의미가 확정되지 않고 결국 독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새로운 의미가 생성확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누가 성서를 읽느냐에 따라 뜻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지요. 남미의 소작농들이 성서를 읽을 때, 여성이 읽을 때, 아시아의 민중이 성서를 읽을 때, 흑인 노예들이 성서를 읽을 때는 1세계 미국 중산층 남성 신학자가 성서를 읽을 때와 전혀 다른 의미와 뜻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양한 의미의 축제를 통해 성서 읽기가 더욱 풍성해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의미의 축제도 좋지만 그것 때문에 헛갈리기도 하지요. 그 많은 의미 중에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가라고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느님의 뜻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교회 전통, 성서 자체, 성서가 쓰여진 시대적 상황, 나, 나의 시대적 상황을 함께 놓고 그 모두를 고려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성서를 읽어 갈 때 나와 공동체에게 의미롭고 적합한 뜻이 발견될 것이고 그것이 모든 시대와 공간을 뛰어 넘는 그런 하느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바로 그 시점에서 개인이나 공동체에게는 하느님의 뜻으로 다가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성서를 분석하다보면 성서 안에서 해석학적 순환을 통해 성서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그렇게 해서 깨달은 대로 실천하면 실천이 다시 성서를 읽게 하는 또 다른 축의 해석학적 순환이 일어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로 한 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하는데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 생각하는 것, 구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등을 모두 말씀해 주시지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그것들을 소재로 강의를 풀어 나갈까 합니다. 아래 그림은 구원을 생각할 때 제게 떠오르는 하나의 이미지입니다만^^

5강 구원! 욕망의 집착에서 사랑의 자유로



그림출처, <http://illbegoodtree.tistory.com/263>

교우들이 구원과 관련하여 불러 주신 단어들 : “도움”, “해방”, “자유”, “천국”, “원죄”, “보혈”, “죄 사함”, “깨달음”, “해탈”, “새로운 시작”, “거듭남”, “회개”, “은혜”, “진리”, “새사람”, “죽음”, “돈”, “교회”

좋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역시 기존의 교인들보다는 훨씬 다양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를 통해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이야기들이 거의 다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 해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은 모두 적절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구원과 관련된 어떤 교리는 성서에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구원과 관련된 논의들이 어떤 자리에서 발생한 것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원죄”라든가,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이라는 것들 모두 조금 더 깊게 이해를 해야지요. 오늘은 그동안 구원과 관련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들, 즉 기존 교인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선 이해를 살피고, 그것이 처음 생겼을 때 가지고 있던 의미와 오늘날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한계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 문제가 있다면 기존의 구원관에 대해 어떻게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이나, 또 대학교 캠퍼스에 있는 그리스도교 동아리 친구들의 전도지를 살펴보면 대다수가 매우 비슷한 틀을 가지고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구원이 무엇인가 물으면 아마도 아래와 같은 내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에 대한 기존의 이해

- 천당-지옥의 틀
-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 원죄
- 죄의 용서와 대속
- 구원예정설



그림출처, <http://daeil.tistory.com/1728>

천당과 지옥, 죄를 지음, 원죄, 죄의 용서와 대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음과 같은 도식은 너무나 익숙한 것이지요.

천당-지옥틀이란 마커스보그라는 학자가 미국의 기존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전제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빨리 버릴수록 좋다고 마커스 보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광명시 쪽으로 가다가 길에서 받은 전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2. 우리는 죄인입니다. 3.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4.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기서도 보이듯이, 천당-지옥틀의 기본은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는 건데,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예수님만 믿으면 천당에 간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한 구조로 보이는 것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이 참으로 많아요. 죄가 뭔지,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야하는 건지, 천당과 지옥이 과연 있는지, 천당과 지옥은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또 무엇인지? 내가 지은 죄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 없어진다는 것은 또 뭔지, 모두가 질문거리인데 길에서 전도하는 분들은 이런 것을 너무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잠시 뒤에 이런 모든 것을 살펴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독특한 교리 중에 원죄가 있지요? 원죄는 뭘까요? “000 :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죄를 지었는데 그게 우리에게까지 내려 온 것이요” 그렇지요. 대체로 그렇게 이해하지요.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 영향이 나까지 내려와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 그런데 이런 설명방식이 현대인들에게 통할까요?

구원 예정설은 무엇인가요? “000 : 이미 어떤 사람은 하느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 좋습니다. 누가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는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우리는 알 수 없지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참 다행이에요. 구원예정설은 원죄라는 교리에 따라 나오는 것입

니다. 원죄와 함께 이것을 말한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신학자입니다. 원죄를 지었으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래서 모두가 다 하느님으로부터 버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이라 자신의 사람들을 죽음으로부터 살리시고 구원하신다는 생각, 원죄는 타고 나는 것이니, 타고 나기 전부터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칼빈에 이르면 더 구체화 됩니다. 하느님의 전능성을 생각해 보면 단순히 자신이 택한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택하지 않는 사람은 버릴 수도 있어야 하 나님의 전능성이 완성된다고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칼빈의 이중예정설이 나오지요. 이거는 오늘날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칼 바르트의 정말 놀라운 예정설이 나오는데요. 칼 바르트는 하느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예정설의 핵심이라고 말하지요. 이렇게 신학자들은 교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계속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천당과 지옥



그림출처,
<http://www.biblemaster.co.kr>

- 하느님 나라와 하늘나라
- 사후와 내세의 문제
- 정의의 실현과 욕망의 실현의 차이
- 유한한 죄와 무한한 처벌이 정당한가?



그림출처, http://ask.nate.com/popup/print_kh.html?num=384212

오늘 강의를 통해 구원을 이해할 때, 기존의 천당-지옥 틀을 넘어서고, 예수의 대속 개념에 대해 깊게 성찰한다면 저는 대 만족입니다. 그럼 이제 천당-지옥틀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일단 천당 또는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부터 살펴 보지요. 천국이 뭔가요? 그렇지요. 하늘 나라입니다. 하늘 나라는 어디에 있나요? 오늘 현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 우주 개념 속에서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천국은 어디에 존재 하는 것인가요? 대기권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구의 대기권을 넘어서 저 우주 공간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하늘 나라가 문자 그대로 우주 공간 어딘가에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이라면 예수 안 믿고도 갈 수 있겠지요. 과학의 발달로 우주선을 타고 가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하늘 나라를 말한 적이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천

국이라고 부르는 하늘 나라는 주로 마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늘 나라’는 사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를 말씀하셨지 하늘 나라를 말하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번역을 신국(神國)이라고 바꿔야 할 거예요.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를 말씀하셨지만,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유대 전통에 따라 하느님 나라를 하늘 나라로 바꿔 부른 것입니다.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는 전도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를 꺼려했던 마태공동체가 하느님 나라를 하늘 나라로 바꾼 것이지요. 그런데 이 하늘 나라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불교가 가지고 있었던 극락개념과 연결되고 불교용어인 천당과 접합되면서 천국으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마태복음서 3장 2절에 하늘나라로 되어 있고, 천국으로 번역한 것에서부터 오해가 생긴 것이고요.

그렇다면 하늘 나라의 본래 개념인 하느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느님의 좌정해 계신 어떤 공간으로서의 하늘 나라가 아니라, 하느님의 통치가 이뤄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주인인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할 때 민국(民國)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인 것처럼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이 주인이신 나라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는 꼭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일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말하는 하느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이미 경험하였고, 그의 삶과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지금 경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경험하게 될 그러한 나라인 것이지요. 내세와 미래에 이루어질 나라로써의 하느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현재 경험하는 하느님 나라를 통해 희망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사후의 일에 관해서는 우리가 조심스레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서는 몸의 부활을 얘기하고, 기독교 신학은 뒤에 그리스 철학과 만나면서 영혼불멸 등을 말해 왔지만 그 모두는 현재의 희망과 소망과 관련된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확실성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산 사람은 아직 죽지 않았기에 모르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 또 죽은 사람을 통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인간은 죽음이 뭔지 모릅니다. 좀 더 실존적으로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삶이 뭔지도 잘 모르겠지요.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죽음 이후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 14장 8절과 로마서 8장 35절, 38-39절의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 놓을 수 있겠습니까? ~ 중략 ~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천당-지옥의 틀은 한편 인간의 도덕성을 확보하는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악하게 사는 사람은 지옥에 가서 벌을 받는다는 구조는 현실을 사는 인간들에게 좀 더 도덕적으로 살 것을 권고하는 권선징악의 효과가 있지요. 불교의 윤회나, 유교의 족보가 가진 역할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천당-지옥틀을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명제(또는 교리)에 대한 사실적 인정(‘믿음?’)과 연결지어 놓아서, 단순히 이 틀이 도덕성을 확보하는 것이나, 정의의 실현과는 전혀 다르게 욕망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오용되기 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았으니 예수 믿고 저 세상에

도 부귀영화를 누리리라는 생각인 것이지요. 그런 욕망의 실현을 위해 교리를 인정하기만 하면 되니 매우 쉬운 일이지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논리를 내세우다보면, 예수가 구원자이시기에 굳이 내가 애써 노력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만연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를 수단으로 사용하고, 개인의 수행은 전혀 필요 없는 매우 이기적 욕망의 장치로 천국-지옥들을 사용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뭐~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저 세상에서도 잘 사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지요. 그 사람의 도덕성이 확보되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지옥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옥이라는 개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애는 유한하고 내세는 영원한 것으로 그래서 영원히 천국이나 지옥에 머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영원한 지옥은 좀 무지막지한 것이 됩니다. 유한한 인생에서의 죄로 인해 무한한 처벌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느님과 정면으로 배치되기에 그리스도교 내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또 외부에서도 볼 때 상식에 어긋나지요. 그래서 아무리 지하철에서 외쳐도 이제 더 이상 천국-지옥의 틀은 소용일 뿐 현대인들에게 먹히지가 않습니다. 천당과 지옥의 문제는 이 정도로 해 놓고요. 천국과 지옥 논의 속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하나가 등장하는데 죄의 문제입니다.

죄와 회개, 그리고 구원

- 원죄의 의미
- 죄의 용서
- 대속의 문제점과 대안



그림출처, http://www.abrahampark.com/kor/edu_data/3236



그뤼네발트, 그림출처, <http://www.abrahamlim.com/2009/03/blog-post.html>

여러분 죄가 됩니까?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왜 그리스도교에서는 그렇게 죄에 대해서 말해 왔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죄가 고통을 낳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최악은 인간이 겪는 고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의 문제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사실 구원이란 어떤 곤경으로부터 구출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통이 왜 생겼나 생각하다가 만들어낸 이론이 바로 원죄, 또는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러분은 “죄 때문에 고통이 생겼다”라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을 생각해 보면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죄 때문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죄 때문이 아닌 데 죄 때문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교가 인간을 억압하는 현상도 발생하고요. 그러나 분명히 죄 때문에 고통이 발생하기도 하지요. 이 문제를 오늘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겪는 고통과 죄를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나서 생긴 결과를 보면 크게 3가지의 불화(不和)입니다. 첫째 인간과 하느님과의 불화, 하느님을 피해 숨어버리는 아담과 하와를 볼 수 있고요. 둘째 인간 사이의 불화, 아담이 하와에게 자신의 잘못을 전가하는 모습이 보이지요. 셋째, 인간과 자연사이의 불화, 땅이 인간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돋게 하고, 인간은 고통 속에서 땅을 일궈 들의 풀을 먹게 됩니다. 일단 성서는 죄의 결과가 각종 소외와 불화라는 고통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건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복잡한 물음이 생기는데요. 왜 하느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런 일을 야기시키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질문은 일단 성서 저자의 의도와는 너무 거리가 먼 질문입니다. 성서를 쓴 사람은 후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할 것이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다양한 해석 속에서 한 가지를 소개하자면 선악과를 하느님을 기억하게 하는 즉 인간의 유한성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로 보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자와 달리 누군가에 의존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을 취해야 하지요. 이것이 무자비한 살생(殺生)이 되지 않고 서로를 살리는 상생(相生)이 되어야 하는데, 인간이 자신의 본 모습을 까먹고 하느님처럼 창조자가 되어 어떤 도움도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권능을 가지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는 바로 인간이 전능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는 장치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고통과 불화, 소외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에 대해 창세기 저자가 얘기해 주는 것은 우선 하느님이 그런 것들을 만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 발생의 원인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뱀이라고 하는 유혹자가 등장하기 때문이지요. 분명 잘못은 인간이 저질렀고 인간에 의해 고통이 발생한 것이지만 이 인간도 뱀에게 속았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저지른 잘못은 단순히 인간이 행했지만 전적으로 인간 그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죄론을 만든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과 매우 비슷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한편으로는 영지주의와 대결하고, 한편으로는 펠라기우스와 대결하면서 원죄론을 만들어 갑니다. 영지주의는 세상을 이원적으로 파악하고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이 공존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영지주의에 따르면 이 세상의 고통은 원래 악한 세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숙명론으로 빠지게 되지요. 악이 원래부터 있는 것이기에, 악 때문에 발생하는 고통은 당연한 것이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생각에 반대합니다. 하느님만이 유일하신 분이고 그분이 선하시고 사랑이시라면 하느님이 아닌 악의 존재를 인정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악과 고통의 원인은 하느님이 아니라 또는 다른 악신의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펠라기우스는 개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면서 모든 악은 개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본주의적 사고이지요. 개인의 의지에 따라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해서도 그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죄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가? 모든 개인의 죄가 다 개인으로부터 생긴 것이고, 또 그로부터 고통이 발생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원죄라는 교리를 만들어 냅니다. 원죄라는 교리는 이후에 개인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사고와 이 죄는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에서 생물학적 사고가 결합되어 이해되지만 원죄론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위에서 말했지만 일단 고통과 악의 원인은 하느님이 아니다. 인간에 의해 저질러진 행위에 의해 악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렇다고 한 개인에게 악의 발생을 모두 떠 넘기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인간도 어찌할 수 없음이 있었다. 그것은 뱀이라고 하는 유혹자에게 넘어간 것이다. 분명히 인간이 저지른 행위이지만 거기에는 복잡한 관계와 상황이 들어 있다. 또 이렇게 악이 들어온 이상, 계속 되는 인간들이 저지르는 죄악들 때문에 그 악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원죄론은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로부터 비롯되어 그 이후의 인간들에게까지 계속 이어지는 악의 연대성, 작은 실수들의 집합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인간 각 개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잘못으로 인해 이어지는 악의 현실과 한편 한 개인이 악의 연대성을 넘어서기 어려운 그 현실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원죄를 뿌리뽑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창세기 이야기에서는 그런 인간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계속 돌보심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느님의 모습이 잘 그려집니다. 그러니 구원은 하느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원죄는 한 개인이 저지른 범죄이었으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함과도 연결되고, 죄의 연대성이 한 개인으로서의 극복하기 어렵다는 사실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실재론으로 이어지는데 죄가 원래부터 존재하는 필연적인 자연은 아니었지만 명백하게 실재하는 그 무엇이 됩니다. 그러니 이 실재하는 죄의 극복으로서의 구원이 반드시 요청되고 하느님의 은총은 이런 상황에서 빛을 발하게 되겠지요.

여러분! 제 설명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고통은 천재지변이 많습니까? 아니면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인재라면 그런 잘못의 원인을 한 개인에게만 돌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회 전체 구조와 상황도 관련되니까? 이런 문제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창세기의 선악과 이야기나 어거스틴의 고민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촘촘히 들어 있는 이 실재적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문제이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느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구원의 희망도 놓쳐서는 안되겠지요.

원죄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요. 그럼 “죄”는 뭘까요? 전통적으로 성서와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말하는 죄는 바로 인간의 자기중심성입니다. “휴브리스”라고, 교만, 인간의 자만,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되려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결국 인간과 하느님,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에 불화를 일으키고 인간을 소외시킨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태만은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인데요. 뱀이 유혹할 때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죄이지요. 하느님의 아들 딸로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내가 행동했어야 하는데 내 선택을 뱀에게 맡겨 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 하느님 아닌 것을 하느님을 알고 섬기는 우상숭배라든가, 불의를 행하는 것 등 등 죄는 많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죄들의 상태에서 벗어나 완전히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전향했듯이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이전 상태가 일종의 사회화를 통해서 되는 것이라면 회개는 죄를 짓게 만드는 사회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천당-지옥틀에 이어 죄의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짓게 하는 사회에 저항하며, 그런 삶으로부터 완벽하게 방향을 틀어 사는 것을 회개라 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이미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겠지요. 즉 죄의 용서가 남았습니다. 죄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고통의 문제 때문이라 했습니다. 내 잘못은 나에게 또는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요. 즉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에 대해 먼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저지른 죄에 대해 다른 사람이 대신 벌을 받는 것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핵심 교리가 바로 “죄와 용서”라는 것으로 요약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음으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 것을 예수가 대신 갚아줌으로써 나는 천당에 간다라고 얘기하는 천당-지옥틀에서 본다면, 이것을 믿는 나에게는 매우 큰 은총의 소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논리 구조는 매우 위험하고 나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비상식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 내가 죄를 지었는데 누군가 대신 형벌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인가? 둘째, 누군가 죄를 지으면 그것에 대해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 사랑의 하느님을 말하는 그리스도교의 논리에 적합한가? 셋째, 한번의 죄에 대해 또 다른 처벌을 하는 것은 그것이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죄의 총량을 늘리는 것은 아닌가? 넷째,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함이라지만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극악무도한 형벌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아버지를 사랑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 등등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할 죄 값을 치르기 위해 대신해서 죽었다”로 보는 것은 정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결과로 얘기해야 할 것을 전제로 놓고 얘기하는 오류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생명을 살리려 오셨고, 모든 생명이 더 풍성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애를 사신 분이시지요. 물론 그 생명 안에는 자신의 생명도 들어 있습니다. 죽음이 목적인 생명체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신나고 행복하게 사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다만 생명을 죽이려는 무리들에 저항하다가 그 폭력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시려는 그의 사랑 때문에 발생한 어떤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결과적으로 희생양이 된 것이라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곧 대신 죽기 위해 이땅에 오신 것으로 이해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잘 아셔야 합니다.

대신 죽기 위해 왔다는 논리 구조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죄와 그에 따른 벌이라는 법률적 논리이지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의 논리는 아닙니다. 무엇무엇이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인과율의 논리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하느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조건을 내세우는 하느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단 한번에 씻으셨다는 논리를 통해 죄악이 넘쳐나는 것을 방지하는 듯 보이지만 어떤 죄에 대해 같은 형량으로 처벌한다는 그 논리 자체가 이미 죄의 용서와는 무관한 논리이고 세상의 악을 증가시키는 논리이지 악을 없애는 논리는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가 죄를 지어 놓고, 하느님께 용서 받았으니 내 죄가 없어졌다는 식의 논리로

악용됨으로써 피해자의 한은 남겨진 채 가해자를 옹호하는 그리스도교가 되어 버린 건 아닌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죄의 악순환을 끊는 것은 물론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용서가 아니면 보복을 해야 할 테니까요. 그러나 예수의 대속 죽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논리가 피해자에게 어떻게 수용될 수 있는지 깊이 숙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대속 죽음으로 이해하기 보다, 이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해, 세상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사랑의 깊이와 높이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로서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지, 악 그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사회구조에 저항하고 세상을 바꿔 다시는 누군가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수의 십자가 처형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이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해 얘기할 때 죄와 예수의 대속으로만 설명하지 말고 다른 면을 살펴 볼 필요가 있고, 사실 성서는 다양한 구원 이미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구원 이미지

- 경제적/정치적/종교적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 귀양살이에서의 귀환
- 위험에서의 구출
- 눈멀에서 눈뜸으로
- 죽음에서 생명으로
- 병약함에서 건강함으로
-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 불의에서 정의로
- 폭력에서 평화로



그림출처, http://prok.org/gnu/bbs/board.php?bo_table=column_board2&wr_id=32148

성서에는 구원과 관련된 단어들이 약 500회 등장합니다. 제1성서(구약)에 3분의 2가 있고, 제2성서(신약)에 3분의 1이 있습니다. 구약성서가 다루고 있는 시기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식의 천당, 지옥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음 이후의 부활도 셀류코스 왕조가 다스리던 시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가혹한 탄압 때문에 생긴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구원이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그 경험은 인간이 하게 되는 것인데,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 사건은 출애굽이라 하겠지요. 출애굽 사건은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또 구원의 사건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의 귀환이지요. 시편에는 온갖 고난과 위험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기도와 또 구조된 것에

대한 감사사가 넘칩니다. 이런 구원 경험은 하느님의 임재와 사랑을 느끼게 해 주고 이를 통해 하느님을 신뢰하게 하는데 신약시대에 이르러도 계속 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삶에서 보여주신 깨달음, 기적, 치유 등을 통해 나타냅니다. 무지에서 탈출하여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고, 예수를 통해 죽음의 위협과 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으며, 이전과는 다른 질적인 삶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요, 선한 목자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불안이 극복되고, 경제적인 정의와 평화가 찾아오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 모두가 구원경험이라고 할 수 있고, 바로 이것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화해론

- 인문학 : 마음의 자기 수양을 통한 이웃과의 화해
- 사회과학 : 부당한 사회의 억압 구조의 변혁
- 심리학 : 자기 자신과의 화해
- 신학 : 모든 관계 회복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하느님과의 화해 문제
-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딤후 2:4)



그림출처, <http://www.luckyworld.net/life/board.php?board=29&n=192105>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구원론은 화해론으로 정리 될 수 있는데, 화해론은 신학 뿐만 아니라 인문학, 사회과학, 심리학에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당함과 불화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할 때, 각각의 학문은 저마다의 화해와 구원을 말합니다. 인문학에서는 자신의 마음 수양을 통해 이웃과의 화해를 도모하고, 사회과학에서는 부당한 사회의 억압구조의 변혁을 통해, 심리학에서는 먼저 자신의 오래된 내면과의 화해를 통해 구원을 말합니다. 신학이 다른 점은 이 모든 것의 화해와 회복 전에 선행되어야 할 하느님의 화해를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만 풀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 의존되어 있는 존재는 스스로 계신 분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학의 구원론 즉 화해론이 인문학, 사회과학, 심리학이 말하는 화해론을 모두 포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구원은 내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억압과 불의, 폭력과 고통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

제를 고민한다면 인문학, 사회과학, 심리학의 사유와 해결책들을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다가 오는데요. 구원은 하느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 알가알부할 처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구원을 말하는 것은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참여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구원을 이루어 가는가?

- 자신의 변화와 사회의 변혁이라는 이중 과제
- 무조건적 은총의 바다에 투신하는 모험
- 사랑의 자유 속에서 누리는 기쁨의 체험



그림출처, <http://nhfaithfusion.com/wp-content/uploads/2013/10/peace.jpg>

구원을 이뤄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구원은 자신의 변화와 사회의 변혁이라는 이중 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욕심도 많고, 실수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살다보면 생각지 않은, 또는 고의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신을 성찰하고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안 되겠지요. 더불어 모든 개인은 세계 내 존재로써 사회의 영향을 받으며 그 사회 속의 존재로 삽니다. 그러니 사회변혁 없이 개인의 변화는 매우 어렵고,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한 것인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깨어 있는 이들의 변화 속에서 결국 사회도 변혁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느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신뢰한다면 매우 어려워 보이는 세상의 변혁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모험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으로 보아서는, 자신의 능력과 재주로 보아서는 도저히 시도할 수 없는 모험에 하느님을 믿고 던지다 보면 거기에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루시는 하느님의 구원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할 자유

를 지니고 사랑함으로써 누리는 기쁨의 체험 또한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원을 이루려는 우리들의 작은 노력이 하느님의 구원 사업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며, 오늘과 내일, 예수를 따라 구원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끝 -

참고문헌

- 폴 리콴르, <해석의 갈등>, 아카넷, 2001.
정재현, <자유가 너희를 진리하게 하리라>, 한울, 2006.
정재현, <티끌만도 못한 주제에>, 분도출판사, 1999.
양명수, <한국교회 인문주의에서 배운다>, kmc, 2014.
손호현, <인문학으로 읽는 기독교 이야기>, 한들출판사, 2008.
마커스 보그, <새로 만난 하느님>, 한국기독교연구소, 2001.
마커스 보그, <기독교의 심장>, 한국기독교연구소, 2009.
마커스 보그,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 비아, 2013.
베른트 야노브스키, <대속>, 한국신학연구소, 2005.